

조선 후기 미공개 서화 걸작 4점, 미국서 돌아왔다

‘석농화원’ 기록된 작품...美 게일 허 여사,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 소치 ‘송도대련’ 등 2점, 김진규 ‘목매도’, 신명연 ‘동파입극도’

‘석농화원(石農畵苑)’ 기록된 작품...美 게일 허 여사,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 소치 ‘송도대련’ 등 2점, 김진규 ‘목매도’, 신명연 ‘동파입극도’

‘석농화원’에 포함된 조선 후기 미공개 회화 4건이 미국에서 돌아와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게일 허’ 여사로부터 조선 후기 회화 총 4건을 기증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게일 허 여사가 기증한 작품은 시아버지인 고 허민수(1897~1972)로부터 물려받았으며 허민수 선생은 진도 출신의 은행가로, 호남 화단의 거장인 소치 허련(1808~1893) 가문의 후손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증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미국사무소 조사와 교섭을 통해 허민수 선생의 연구자인 광주 박물관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증품 가운데 소치 허련의 작품 2점도 포함되어

있다. 험하게 뾰은 소나무를 그린 ‘송도대련’의 상단에는 허련이 적은 제시(題詩)와 낙관이 남아있다. 8폭의 ‘전강산수도병풍(錢江山水圖屏風)’은 전형적인 소치 화풍의 산수도로, 병풍 뒷면에는 허민수 선생과 가까운 친척인 의재 허백련(1891~1977)이 쓴 표제가 남아 있어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에 포함된 조선시대 김진규(1658~1716)의 ‘목매도(墨梅圖)’와 신명연(1808~?)의 ‘동파입극도’는 조선 후기 회화사의 공백을 채워 줄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목매도’는 지난 2013년 새롭게 알려진 ‘석농화원’ 필사본 권1에 제목과 그림의 평만 전해오던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실제 작품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동파입극도’는 송대 문인 동파 소식(1037~1101)이 귀향시절 샷과 낙막신 차림으로 비를 피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라며 “화사한 화풍도로 유명한 신명연의 희귀한 인물화라는 점에서 19세기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규 작 ‘목매도’

작품을 기증한 게일 허 여사는 작고한 남편 허경모 씨 유품을 정리하면서 기증의 뜻을 갖게 됐다고 한다. 게일 허 여사는 지난해 5월 이웃에 살던 한국인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후 국외소재문화재단에 미국사무소가 허련의 작품을 감정하다 다른 두 작품도 추가로 확인됐다는 것.

국립광주박물관은 “재단 측으로부터 소장품의 회화사적 중요성과 환수 필요성을 전해 들은 게일 허 여사가 한국에 기증할 뜻을 밝혔다”며 “시아버지 허민수 선생의 고향인 진도와 연구가 있는 광주박물관에 시아버지 이름으로 기증할 것을 결심했다”고 저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워싱턴DC 재단 사무소에서 개최된 광주박물관 기증서 전달식에서 게일 허 여사는 “시



게일 허(가운데) 여사가 지난달 28일 워싱턴 DC 국외소재문화재단 미국사무소에서 광주박물관에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작품들이 잘 향유될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박물관은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후 올 하반기 특별전을 통해 기증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군 공항 이전 후보지 합평, 광주 편입 발언 강시장 사과하라”

전남도의원들 “합평군민·전남도민 기만 분란 조장” 비판

전남도의원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합평군의 광주 편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기정 광주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회운영위원장(민중·강진) 등 50여 명의 의원들은 4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200만 전남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합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꿈꾸는 광주시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강 시장이 최근 일방적으로 합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언급한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61명 전체 도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는 게 전남도의회 설명이다. 의원들은 “광주시가 합평군민과 시도민의 의사를 안중에도 없이 독단적으로 합평군의 광주시 편입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발언은 합평군민과 전남도민을 기만하고 분란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 시장은 합평지역 일부 단체에서 군 공항 이전 조건으로 내세운 광주와 합평의 통합 추진 및 민간 광주공항 합평 이전 등과 관련,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결정 선례가 있으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며, (민간공항 이전 지역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도의원들은 “광주시는 지난 2021년 민간공항 이

전 약속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더니 이제는 지역이 주위에 쫓겨 합평을 광주로 편입하겠다는 망상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발언해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합평군의 광주시 편입은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 편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합평군민뿐 아니라 전남도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줄 것”이라며 “광주시장은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합평군은 대응면에서 발생한 산불 등을 이

유로 오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광주 군(軍) 공항 이전과 관련한 읍·면 설명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합평군은 5일 오전 손불·신광면, 5일 오후 나산·해보·월야면, 6일 오전 학교·염다면, 6일 오후 합평읍·대동면 등 9개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묶어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다.

합평군은 추후 일정을 정해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한 뒤 오는 6월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23억 투입 2개 프로젝트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역 전략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국비 15억원, 시비 8억원을 투입해 미래 산업·노동 전환 대응, 기술 취·창업 활성화 지원 등 2개 프로젝트에 걸쳐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산업 프로젝트에서는 신산업 특화형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광주 일자리 플랫폼(광주 일집GO)

를 개편해 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등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창업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에서는 청년 기술 인재 사관학교 운영, 중장년 취·창업 사각지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최대범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로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흑산공항, 연내 착공 가능할 듯

전남도청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평가항목·범위 결정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를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4일 오후 도청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주최로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열려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대표, 시민단체 추천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결정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은 조만간 서울지방항공청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흑산공항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이 지난 1월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중지됐던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즉시 재개하고 사업이 연내에 착공되도록 지속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의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전남도민의 깊은 관심과 기대 아래 시작됐다. 신안 흑산면 예리 일원에 1833억 원을 들여 길이 1200m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갖춘 50인승 이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안 도서지역 교통 불편 및 섬 관광 기반시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26년 개항하면 서울에서 7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대로 단축돼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개선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이 가능해 의료서비스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연내에 착공되도록 앞으로도 사업 시행 청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적극 협조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